

민족의 아픈 상처 우리가 치료

일제징용, 탈북자 문제, 노근리 학살 등 한국 근·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1.5세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화제다.

민족사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며 부모들의 상처 보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젊은 세대의 다짐은 가치관의 혼돈시대에 살고 있는 한인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. 일제 징용과 탈북자 문제에 사명감을 갖고 뛰고 있는 두 1.5세 변호사를 만나봤다.

“잘못된 지난 역사 바로잡아야”

강제징용 대변
신혜원 변호사

“강제징용 뿐만 아니라 정신대, 징병 등 일제의 억압으로 정신적·신체적 고통을 당한 한국인들이 어디 한 둘입니까.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도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지요. 이런 민족사의 아픔을 씻어



이 케이스가 단지 개인의 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아픔을 담은 민족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”며 “잘못된 지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있다”고 말했다.

정씨의 소송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전쟁범죄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을 골자로 지난해 도입된 주법에 근거해 제기된 최초의 케이스.

신변호사는 “현재 정씨와 비슷한 고통을 받은 한인들이 소송에 동참할 뜻을 밝혔고 있는데